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3, 내러티브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구약성서의 문학비평을 생각할 때 마지막 문학비평회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점은 문학비평이 전통적으로 찾아왔던 텍스트 중심의 접근방식이라는 점이다. 텍스트 자체에 있는 의미는 때로는 저자, 출처, 형식, 역사적 맥락, 심지어 텍스트 외부의 외부 세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질문을 묶고 텍스트 안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바라보는 대가로 텍스트 자체에 위치합니다.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텍스트와 그 구조, 그리고 그 내부 작용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문학적 접근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결론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우리는 문학 비평이 허구 문학으로서의 비유를 분석하는 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서 비유를 살펴보고, 비유의 구조와 그 안에 담긴 등장 인물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서신의 예를 보기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구스타프 프레이타그(Gustav Freytag)라는 사람은 바울 서신의 예를 사용하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즉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나 서신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프레이타그(Freytag)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드라마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드라마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예를 들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소개하는 서신의 주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1장

16절과 17절을 제안합니다. 도발적인 액션, 드라마의 첫 액션.

그리고 1장, 18장에서 4장 25절까지 긴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장은 서사적 전환점이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낙하 액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은 드라마의 결의이다. 그래서 프레이타그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1세기 편지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5장이 편지의 전환점이라는 제안입니다.

일부 현대 로마서 개요에서는 6장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은 칭의를 다루고, 6장부터 8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에 따르면 5장이 주요 초점이며, 주요 요점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3장이나 8장을 편지의 주요 부분이자 요점으로 보는

일부 사람들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약성서의 서신에

극적인 문학적 요소를 적용하려는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시도의 한

예입니다.

따라서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즉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문학적 접근 방식을 예시로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문학적 분석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적 구조를 강요하는 문제, 아니면 단순히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대 텍스트에 구조와 범주를 부여하는 문제이다. 확실히 그 자체가 반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 문학적 분석은 텍스트 자체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실제로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 텍스트에 구조를 부과하거나 범주를 부과하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 자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일하다.

그러므로 첫째, 고대 문헌에 현대적인 구조와 범주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구조나 범주는 텍스트 자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알아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본문의 역사적, 신학적 차원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때때로 문학 비평은 저자와 관련된 역사적 문제나 역사적 질문,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 텍스트 외부의 참조성 문제, 특히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사람들을 다루며, 역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역사적, 신학적 질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학 비평은 본문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문 이면에 있는 가설적 재구성이나 우리 자신의 신학적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문학비평을 통해 우리는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문 자체와 접촉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역사적, 신학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해석학적 작업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문학 비평의 하위 집합 또는 측면 중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비평일 것입니다.

서사 비평은 다시 말해 서사 텍스트에 대한 연구입니다. 문학 유형 연구에서 서사 문학에 대해 묻는 질문 종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 질문하고, 등장인물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서술 시간이 아닌 스토리 시간 같은 것에 대해 묻거나, 서술의 관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성경 본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러티브 관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하나는 저자, 역사적 저자, 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범주 대신에 독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본문의 음성은 반드시 역사적 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음성을 서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즉 텍스트를 듣는 사람들, 즉 이야기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사람입니다. 관점, 관점 같은 것들은 작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작가가 이야기를 할 때, 사건을 서술할 때 작가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내러티브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서론이나 주인공을 소개하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줄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고 이야기의 흥미진진한 액션을 의미합니다. 도입부나 설정을 넘어서는 다음 요소는 텍스트의 갈등이나 위기일 것이고, 세 번째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텍스트와 스토리의 긴장감을 고양시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정이나 위기로 인해 생성된 고조되는 긴장 에 대한 해결책 또는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느슨한 실타래를 간단히 모아서 이야기를 적절한 결말로 가져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 본문의 문학적 작업의 관점에서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레이터와 내러티브,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줄거리, 그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역사적 질문과 역사적 관심을 괄호로 묶는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방법의 의미는 아니지만 종종 동반됩니다. 다시 한 번, 성경 본문을 분석할 때 내러티브 비평을 사용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예를 들기 위해 창세기 22장, 잘 알려진 아게다, 이삭의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한 것, 22장 1절부터 19장 중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이삭을 산으로 데려갔고 이삭 자신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희생 제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고, 모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할 동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제단에 올려 놓고 칼을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희생 제물로 쓸 숫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를 특히 플롯의 서사적 기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이나 배경은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서술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전체의 시작 부분은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는 2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에게는 위기를 좀 더 실존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중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로 일종의 실존적 문제로 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한 차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요,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의 약속을 죽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3절부터 10절까지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약속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잡을 숫양에 대해 묻습니다. 도살될 동물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정도로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음의 일격을 가하는 것을 막으시고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축복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미시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책의 한 부분만 설명하면 책 전체를 전형적인 서사 구조에 따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이나 설정, 위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문제의 해결이 뒤따릅니다.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내러티브의 결론. 구약의 인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서사 평론가들은 캐릭터가 완전히 성장한 둥근 캐릭터인지, 심지어 신체적 특성, 심지어 심리적 특성까지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발전하지 않는 평면적인 캐릭터인지 분류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만화 캐릭터인지 .

코믹이란 반드시 웃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미디 즉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거나,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말로 끝나거나, 등장인물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침체되는 곳, 캐릭터가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만나는 곳, 또는 다시금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든 주변 인물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물을 분석하고, 인물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다른 인물은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엘리사 이야기인 엘리사 이야기 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사를 둥근 인물, 둥근 인물로 묘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묘사되어 있고 그가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종종 비극적인 인물로 간주되는데,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경력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비극적인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 불리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진짜 갈등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사울 모두가 직면한 부적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자 군대를 지휘하는 골리앗이 사울의 문제이고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주로 다윗과 사울 사이의 진정한 갈등을 강조하기 위한 부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서 플롯, 성격, 관점, 화자, 화자와 같은 공통 서사적 특징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특징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등등. 신약성서에서는 신약성서의 몇 가지 예를 들기 위해 이미 비유를 살펴보았으므로 더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특히 복음서 전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석하는 데 많은 유익한 내러티브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유조차도 줄거리에 따라, 주인공이 한 명인지, 둘인지, 셋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유는 종종 U자형 줄거리에 따라 분석되는데, 그것이 희극적인 것인지, 즉 줄거리가

위로 향하는 것인지, 비극적인 것인지, 줄거리가 하향되는 것인지에 따라 분석되어 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에 따라 비유를 분석했습니다.

내러티브 비평을 적용하거나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 관점에서 복음서를 분석하려는 초기 시도 중 하나는 업데이트되었지만 Rhodes와 Michie라는 두 사람이 제작한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Mark as Story라는 책인 복음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구약성서 학자와 영문학 교수이자 학자인 리터가 공동 집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복음이 일관성 있는 줄거리와 특징을 지닌 일관된 이야기임을 입증하고, 다시 마가복음에 동일한 서술 및 이야기 분석 방법을 적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적대감이 커지면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 점점 커지는 적대감을 강조하는 긴장감이나 음모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진멸하려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부터 음모가 고조되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분명히 복음의 주요 주인공, 또는 일종의 영웅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과 상호 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되며, 유대 지도자들과 사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작은 인물들과도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든 없든 다양한 인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7장, 8장, 9장과 같은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응답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예수님의 다양한 반응에 주목합니다. 그 반응의 결과.

그러므로 복음서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요한복음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속도를 늦추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캐릭터다.

그리고 제가 논의하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은 아마도 가장 사소한 인물이거나, 적어도 복음서에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세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바라바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가 John에서 맡은 역할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문학, 특히 복음서의 인물을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자가 문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주목함으로써 더 넓은 담론에서 그들의 기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즉, 이런 질문을 하자면, 우선 캐릭터가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캐릭터가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복음서 곳곳에 인물이 등장하나요? 아니면 종교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서의 명백한 주인공이자 주역인가요? 아니면 복음의 특정 부분에만 등장인물이 몇 번만 등장합니까? 둘째, 인물을 언급할 때 그 인물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등장인물이 주어인가요, 주연인가요, 동사의 주어인가요? 등장인물이 실제로 동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까? 아니면 캐릭터가 오브제일 뿐인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는 결코 자신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동사의 주어라면, 그는 바라바처럼, 또는 바라바가 반란자였거나, 바라바가 강도였던 것처럼 그를 식별하는 존재 동사의 주어만 되는 것입니까? 그 단어는 그가 수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우가 행동, 활동 동사의 주어인가요? 배우가 실제로 서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배우가 동사의 목적어로만 언급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의 수식어로만 언급되나요? 배우는 서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의 연설에서만 언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동작이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참여자나 등장인물이 동사의 동작 유형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동사에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언급됩니다. 바라바는 복음서, 즉 요한복음에서 몇 번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군중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40절은 군중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대답하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바라바가 반역에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기능에 관해 말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첫째, 바라바는 이야기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그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우선, 그는 동사 give의 목적어입니다. 둘째, 바라바가 주어일 때 그는 존재 동사의 주어입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어 본문을 식별했을 뿐입니다. 사실 바라바는 반역자요 강도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번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바라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방법으로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사의 목적어로만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라바는 서술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아마도 포일처럼 서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군중은 18장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명백히 입증되는 예수님보다 그가 해방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러니합니다. 반란군이나 반군보다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둘째, 바라바도 그를 반역자나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그들도 이 불법적인 음모에 연루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뿐만 아니라 추종자나 군중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 조종사와 군중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이 섹션에서만 등장하는 다소 작은 캐릭터이며, 행동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연설의 대상입니다. 그는 연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도 그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John이 말할 때, John이 그의 이름을 다시 언급할 때, 단순히 그의 성격을 식별하기 위해. 따라서 등장인물과 그들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통해 저자가 그들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작업해 온 요한복음의 또 다른 인물은 사탄 또는 마귀이며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그가 어떻게 묘사되는지입니다. 언뜻 보면 사탄이 요한복음에서 다소 통합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중요한 곳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이나 마귀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 번 사용됩니다. 사실 그는 마귀라고 세 번, 사탄이라고 한 번, 세상의 통치자라고 세 번 더 불렸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번이나 사탄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탄은 복음서에서 그다지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가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그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과 70절과 같은 본문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나 사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가 방금 예수께 말하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아니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은 악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마귀로 식별된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다를 식별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예수의 연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귀는 유다를 식별하는 것 외에는 이야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언급된 다음 장소는 8장과 44절인데,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적절하고 부적절하다는 다양한 반응의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논의의 정점은 44절, 즉 누가 바리새인들의 참

아버지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원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비유를 가지고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였고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니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는 거짓말할 때에는 자기 모국어로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마귀가 아버지로서의 마귀 로 여러 번 언급되지만 그 또는 그와 같은 대명사로도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서 사탄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바리새인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묘사할 때에도, 다시 한 번, 그것은 단순히 그를 살인자로 식별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는 진정한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사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탄은 주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을 선동하거나 선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맥을 더 명확하게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행위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탄은 단순히 서사 속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참여자, 주요 행위자, 즉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근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탄은 다른 여러 곳에서 악마에 대한 언급으로 언급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만찬이 있을 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역할을 하라고 촉발하였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느니라. 여기서 마귀는 서사의 주요 행위자로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그는 유다와 관련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법적으로, 마귀가 이미 유다에게 속삭였다고 말하는 이 진술은 단지 예수께서 수건을 가져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4절에서 행하시는 일의 배경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사탄은 이야기에서 다소 사소한 역할, 하찮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탄이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그는 어떻게 언급됩니까? 작가는 이야기와 내러티브에서 그를 연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장소는 27절에서 같은 이야기의 끝부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그리고 자신의 배반을 예언하신 후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너희를 팔겠느냐 물으니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동사, 행동, 행동의 주어가 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신 최초이자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시점까지 다른 모든 곳에서는 사탄이 13장이나 13장의 시작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와의 관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행동을 배경으로 활동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사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합니다. 이제 사탄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다른 명칭이나 문구와 함께 세 번 더 언급되며,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사탄은 세 번이나 통치자로 불리며, 어떤 번역판에서는 이 세상의 왕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 즉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가리킨다. 그분은 14장에서 두 번 더 언급하셨고, 16장과 11절에서도 심판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통치자, 즉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제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흥미로운 점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거나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례에서 무엇보다 먼저 사탄을 통치자로 언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세상의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에서 세상의 통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연설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모든 언급에서 사탄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이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언급에서 그는 이제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사탄이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도록 한 바로 그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심판과 몰락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셨거나 지금 이 세상 통치자의 통치자가 정죄받거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 즉 그분의 영광을 언급하는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한 언급을 보았는데, 사탄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살인적이고 기만적인 활동의 아버지, 참된 근원, 기원, 아버지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행하는 바로 그 일은 그의 몰락과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름에 사탄이 제시되고 명명되는 방식에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이 마귀라고 불릴 때, 또는 그가 사탄이라고 불릴 때, 그것은 항상 다른 인간 행위자, 즉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다른 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논의될 때 그는 사탄과 마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적절한 상관관계인 것 같습니다. 참소자를 뜻하는 마귀, 혹은 대적, 원수를 뜻하는 사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악마와 사탄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요한계시록 12장과 9절과 같은 본문에 따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죽이고 죽음을 가져온 창세기 3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 즉 마귀는 유다와 종교지도자들을 선동하고 영향을 주어 거짓말을 믿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는 사탄의 활동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탄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가 세상의 통치자, 즉 세상의 왕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주적인 전쟁이나 갈등이 있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다른 통치자에게 굴복하고 또 다른 통치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패배하고 무력해집니다. 따라서 문제는 권력과 왕권의 문제이므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아마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번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대조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사용되는 방식에도 사탄이 인간, 유다 및 종교 지도자들과 상호 작용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일 때 그는 그들을 속이고 믿도록 선동하는 사탄 또는 악마로 묘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가 신이나 예수, 다른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로 묘사될 때,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되며, 그의 패배, 권력 상실, 다른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주 전쟁과 우주 전투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음서에서 인물이 묘사되고 제시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심지어 문법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이 동사의 주어인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동사의 목적어인지, 단지 식별되는 것뿐인지, 단지 다른 것을 수정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은 배우나 참가자가 맡은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사탄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서사에서 그가 맡은 역할에 관한 한 작은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는 그가 신학적으로 미미하다거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미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러티브에서 그가 연기자로 묘사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는 전체 연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보다, 참여자로서 다른 인간 배우들을 속이고 예수를 죽이도록 선동하는 데 더 많은 조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사 그 자체. 따라서 내러티브 비평은 등장 인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작가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자체를 다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작가의 의사소통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는 다시 한 번 제쳐두고, 그것에 너무 열중하지 말고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사람들이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야기와 내러티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플롯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긴장이 어떻게 고조되고 해결되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 성격 묘사나 묘사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유형의 장면이나 반복, 중요한 중요한 연설은 모두 내러티브나 이야기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 중 일부는 이 영화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데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본 영화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였습니다. 하나. 지금은 백 투 더 퓨처 2, 3 세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마이클 J. 폭스가 연기한 십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취소하고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는 특정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로 돌아올 때, 과거에 있었다가 마침내 돌아올 때 현재로 돌아가서 그는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에게는 다소 놀랍고 즐거운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내러티브의 관점이 무엇인지,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의 주요 관점과 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납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 중요한 장소에서 두세 번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데, 즉 머리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주의 깊게 볼 때, 이 문구가 물리적인 머리가 등장하는 장면, 특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이클 J. 폭스(Michael J. Fox)가 연기한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에 의해 얼마나 많이 뒷받침되는지 주목하세요. 과거, 그는 현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DeLorean 차에 타고 있는데 문제는 DeLorean 노점입니다.

그는 현재로 다시 이동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속도에 도달해야 하지만 차가 멈추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차가 출발했다. 실제 머리가 관련된 장면은 영화 전반에 걸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영화가 전달하려는 주요 관점이나 메시지는 머리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플롯을 검토하고, 등장인물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검토하고, 중요한 연설과 반복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내러티브나 스토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특히 서술형 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서사적 접근의 장점으로, 서사적 접근은 텍스트의 세부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과거에는 특히 나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학자들에게 내러티브는 주로 주요 신학적 진리를 추출하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단지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명제적 진리가 무엇인지 끌어내기 위해 그것을 채굴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접근 방식은 내러티브가 단순히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전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접근 방식은 다시 폭로와 위기, 긴장감 고조, 해결 등 줄거리를 살펴보고, 등장 인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텍스트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부 사항, 즉 본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접근 방식은 확실히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세부 사항과 접촉하게 만드는 모든 것. 내러티브 접근 방식의 두 번째 가치는 가설이든 아니든 텍스트 뒤의 형식에 집착하거나 출처를 재구성하는 대신 텍스트 전체, 즉 텍스트의 최종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시 한 번, 영감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내러티브 접근 방식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기원과 출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 즉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국 텍스트의 최종 형태, 즉 텍스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비평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러티브 비평은 때때로 이전에 불일치, 갈등, 모순, 또는 텍스트를 하나로 묶는 일종의 가위와 풀의 기원으로 생각되었던 텍스트에서 통일성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러티브 접근 방식과 문학적 접근 방식이 텍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일관성 있는 통일체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러티브 접근 방식이고 내러티브 비평은 두 번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지만 텍스트 자체가 의미의 중심이지 그 뒤에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성경이 영감받은 텍스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출처와 제작 배경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궁극적 으로는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술적 접근 방식으로, 텍스트가 신학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내러티브 텍스트는 우리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위한 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학 구조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신학은 텍스트 분석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서술적이고 문학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모든 데이터와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나는 해석학과 해석학, 매우 성경적인 해석을 가르쳤을 때 아주 초기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당신의 신학을 이야기와 내러티브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신학을 내러티브와 이야기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러티브와 이야기가 신학을 전달하는 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강점은 내러티브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텍스트의 미학과 효과를 상기시키고 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문을 읽는 것이 타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신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 효과 때문에 전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단지 명제적 신학적 진리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이야기가 효과와 음모, 문학적 영향력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내러티브 접근 방식의 강점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거나 간과했을 수도 있는 텍스트의 새로운 통찰력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문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말한 것과 중복되는 내러티브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약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때때로 서술적 접근 방식은 텍스트의 역사적 차원을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줄거리나 등장인물 등을 강조할 수 없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지시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특히 확신하는 복음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다름 아닌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며,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텍스트가 손실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텍스트를 만든 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들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본문의 역사적 차원을 무시하고 역사를 상실할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본문의 신학적 차원을 잃거나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구약성서의 전체 문서 모음, 곧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일부 방법과 범주가 본문에 도입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대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현대 소설과 현대 문학의 범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텍스트 자체가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우리가 묻는 질문의 종류와 텍스트에 가져오는

범주의 종류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고와 약점을 고려할 때, 문학 비평과 내러티브 비평의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은 우리가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에게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학적 접근 방식, 더 좋게 말하면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즉 텍스트 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접근 방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주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질문과 저자 질문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수사비평이나 수사학적 접근은 다시 텍스트 전체에 집중하여 텍스트의 내부 작용을 살펴보고 텍스트 자체를 살펴보거나, 텍스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의미의 장소 또는 해석 활동의 장소로서.